

'제2 양학선' 났다...광주체고 문건영 전국대회 4관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4관왕에 오른 광주체고 문건영.

광주체육고 남자체조 간판 문건영(1년)이 양학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광주체육고등학교에 따르면 문건영이 지난 18~21일 영광군 스포티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며 4관왕에 올랐다. 문건영은 남고부 개인종합(76.200) 1위, 안마(13.267) 1위, 도마(13.483) 1위, 평행봉(13.967)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링 부문은 3위(12.033)를 차지했다. 4관왕은 지난 4월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고 체육대회에 이어 두번째다. 문건영은 당시 링·평행봉·철봉·개인종합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문체부장관기 체조대회 금 4 개인종합·안마·도마·평행봉 1위
쟁쟁한 2·3학년 선배들 제쳐
11월 세계주니어올림픽 활약 기대
오상봉 감독 "성장 가능성 매우 커"

광주 양상초, 체육중학교를 거쳐 체고에 진학한 문건영은 이번 대회에서 쟁쟁한 2·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4관왕에 올랐다. 그는 제47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체

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개인종합 1위에 올랐는데 일반부와 대학부를 통틀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체조계는 벌써부터 11월에 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니어 올림피아드대회에서 문건영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양학선을 길러낸 오상봉 광주체고 감독은 "문건영은 다재다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면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선수"라고 평가했다. 문건영이 여느 선수와 다른 점은 못하는 종목이 없다는 점이다. 양학선의 경우 주특기인 팀동과 마루에 강점을 보였지만 문건영은 기구 종목(안마, 링, 평행봉, 철봉) 등에서도 나무랄데 없는 기량을 선보이고 있

다. 실제 체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이 전대회를 석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고교급 난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도 장점이 다. 워낙 기술 접수가 높기 때문에 한 두 차례 실수해도 개인종합 성적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한다. 광주체육고 김재안 교장은 "선배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멋지게 다관왕을 차지한 문건영 선수가 자랑스럽고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며 "향후 1~2년 후 시니어 연령이 되면 광주체육고 선배인 양학선 선수와 같이 올림픽에 참가할 그림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엄마 공사' 기보배 화려한 부활

회장기 양궁 퀴리피케이션 70m 우승...광주시청 동료 최미선 2위

'엄마 공사' 기보배(광주시청)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기보배는 지난 22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일반부 퀴리피케이션 70m 경기에서 346점을 쏴 1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최미선(순천시청)은 343점으로 김수린(현대모비스)과 공동 2위에 올랐다. 30m 경기에서는 최민선(광주시청)이 2위에 자리했다. 357점을 쏜 최민선은 전현영(인천시청·358점)에 이어 위나연(LH), 신정화(대전시체육회), 강채영(현대모비스), 안세진(정주시청), 정다소미(현대백화점), 박재희(홍성군청), 김수린(현대모비스)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기보배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활약을 기대된다. 그는 지난 6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선도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혼성단체전에서는 이승윤(남구청)·최민선이 팀을 이룬 광주가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는 16강전에서 경북을 세트스코어 6-0으로 꺾고 8강에 올라 제주를 5-1로 제압했다. 이어 열린 준결승전은 치열한 접전으로 펼쳐졌다. 1엔드를 39-36으로 이긴 광주가 2점을 먼저 따냈다. 2엔드 39-39, 세트스코어 3-1로 앞서나간 광주는 3엔드에서 38-39로 패하며 3-3 동점을 내줬다. 마지막 4엔드에서 울산이 40점 만점을 쏘고 광주가 39점을 쏴 세트스코어 3-5,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2 태극마크 선수들이 소속 팀으로 복귀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마지막 기량점검에 나선다. 24일에는 일반부 개인·단체전 결승전이 치러지며 25일부터 사흘간 대학부 경기가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1일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기보배(왼쪽)와 최민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지난 20~21일 광주여자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2022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 남자시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광주 '광산연합팀'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광주·전남 배구동호인들 문체부장관기 '선전'

'더 빛날'·'무등산' 등 4개 클럽 우승
광주·전남 배구동호인들이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에서 선전했다. 23일 광주시배구협회(회장 전갑수)에 따르면 2022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가 20~21일 이틀간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한배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광주

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제주, 경기, 대전, 인천, 전북 등 각 시도에서 활동중인 배구 동호인팀이 대거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5개 부별로 치러진 대회에서 남자클럽3부는 '더 빛날' (광주)이 1위를 차지했다. 더 빛날은 준결승전에서 광주 남자생활체육 강호인 '배사모'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목포의 '난공불락' 팀을 세트스코어 2-0으로 꺾어 우승했다. 3위는 배사모와 '돌핀스' 팀이 차지했다. 여자클럽2부에선 '무등산' 팀이 우승을, '나인스

타' 준우승, '목포열풍'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6인제부 남자는 대전시 연합팀이 우승했다. 광주 배사모는 준우승을 안았다. 6인제부 여자는 광주의 '현클럽'이 우승해 금메달을 걸었다. 목포의 '한울클럽'은 준우승에 올랐다. 남자시니어부에선 광주 '광산연합'이 결승에서 접전끝에 '무등산' 팀을 이기고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피겨 기대주 차영현,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출전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기대주 차영현(고려대)이 2022-2023시즌 첫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한다. 차영현은 24~27일(현지시간) 프랑스 쿠르슈벨에서 열리는 2022-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에 한국 남자 싱글을 대표해 '나홀로' 참가한다. 2003년 9월생인 차영현은 올 시즌 주니어 대회 출전 가능 연령(2003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출생자)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됐다. 지난달 주니어 그랑프리 파견 선수 국내 선발전에서 서민규(경신중)에 이어 남자 싱글 2위로 출전권을 따낸 그는 '주니어'로 보내는 마지막 시즌 포디움을 바라본다.

차영현은 지난해 9월 ISU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4위에 올라 아쉽게 메달을 놓친 바 있다. 여자 싱글에선 윤서진(한강중), 김유재(평촌중)가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윤서진은 파견 선수 선발전에서 여자 싱글 6위, 김유재는 7위를 기록해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을 한 장씩 따냈다. 아이스댄스에는 선발전 1위를 차지한 임하나·취안예(경기일반)조가 출격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임하나·취안예조는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이던 1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선수로는 시니어와 주니어 ISU 그랑프리 시리즈를 통틀어 처음으로 아이스댄스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테니스 세계 2위 츠베레프 발목 부상에 US오픈 불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가 29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에 불참한다. 츠베레프는 6월 초 프랑스오픈 준결승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과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이후로는 대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발목 인대 수술을 받은 츠베레프는 이후 열린 워싱턴에도 나오지 못했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도 건너뛰게 됐다. 츠베레프는 2020년 US오픈에서 준우승했고,

지난해에도 4강까지 오르는 등 최근 US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올해 US오픈에는 츠베레프 외에 가엘 몽피스(25위·프랑스), 라일리 오펜(28위·미국) 등도 불참한다. 츠베레프는 US오픈이 끝난 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데이비스컵에 출전하고, 9월 말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ATP 투어 코리아오픈에도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헌트
- 2관 헌트
- 3관 육사오(6/45)
- 4관 한산: 용의 출현
- 5관 불릿 트레이닝
- 6관 육사오(6/45)
- 9관 불릿 트레이닝
- 7관 씨네캐플 한산: 용의 출현,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 8관 씨네캐플 늑,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11시 음악산책
독일음악의 성지, 라히처히
일시: 2022. 8. 29. (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포시츠, 실내악 시리즈 I
김동현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2022. 9. 5. (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